

# 전후 난요 지역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전개

기타군 구 이카자키초 및 우와지마시 고쿠보

야마나카 겐타

번역: 김 현정

## 들어가는 말

생명, 생활을 지키는 일인 위생의 개선이야말로 긴급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 과제였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생활을 변화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개선 활동이 역사적으로 현저히 나타난 것은 전후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었다. 원래 감염증을 매개하는 서족곤충의 근절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환경위생개선 운동이었는데, 활동이 열심히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환경위생개선 운동의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다양한 생활 개선이 도모되었다. 또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모델 지구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때 단순히 똑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생활과제를 끄집어낸 다음 그 상황에 맞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위생개선은 어떤 내용이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파급되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라는 정책이 현지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란

### (1)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에 대해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란 감염증을 매개로 한 서족곤충 구제를 목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전후 주민 주도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이 활동은 단순한 환경 위생으로서 공중위생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활동으로 교육적인 요소도 포함되었다. 하시모토 마사미,<sup>1</sup> 스가와 유타카<sup>2</sup> 등의 공중위생 학자들도 쇼와 30년대 당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에 대해 생활개선과의 적극적인 관계성을 지지하였다.

## (2) 역사적 경과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전개에 대한 공중위생학의 하시모토 마사미, 스가와 유타카, 세키 나 오미<sup>3</sup>의 주장과 문화자원학의 사와다 루이<sup>4</sup>의 주장에서 보이는 공통된 역사 인식을 먼저 살펴보자.

전쟁 이전까지는 곤충매개질환의 박멸을 목적으로 메이지 30년 4월에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위생조합 설립이 규정되었고, 조합은 경찰의 감독 하에 서족곤충을 구제하고자 했다. 다만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서족위생해충구제가 시정촌에 의무화되었다. 전후에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강제적인 조직은 사라졌고 각 시정촌에서 실시하던 위생활동 또한 일시적으로 수그러 들었다.

전후의 보건행정은 GHQ의 주도로 도도부현 보건소에 환경위생감시원을 배치하고 위생반을 정비했다. 쇼와 21년에는 ‘서족곤충에 의한 전염병 예방강습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위생과에 서족곤충 구제 관리 담당책임자를 두고 현시정촌에 서족곤충 구제반을 설치하도록 하는 연합군의 지시가 있었다.<sup>5</sup> 이 사업에는 쇼와 24년까지 5억 엔 규모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쇼와 25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보조금은 중지되었다. 한편 이를 메우듯이 전국 각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주적인 구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시정촌이 현에 활발한 활동 지구를 모델 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현 내 다른 지구로 확대되었다. 쇼와 27년경부터 모델 지구 사업으로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이 인지되기에 이른다.

모델 지구 사업으로 시작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은 쇼와 30년 6월 각의 결정<sup>6</sup>에 기초하여 3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보급해 나갔고 국민운동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그러나 쇼와 35년경부터 주민 주체성의 결여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활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이 아니라 목적과 어긋난 약 뿌리기, 조직의 유명무실화가 드러났다. 또 알루미늄 새시, 방충망의 보급으로 각 가정이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변화했다.

## (3)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난요 지역에서의 도입

여기에서는 에히메 현 난요 지역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례 지역은 두 군데인데, 한 곳은 기타 군 구 이카자키초이고 또 한 곳은 우와지마 시 고쿠보이다. 활동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두 군데 모두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지향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두 지구를 사례로 하는 이유는 두 지역 모두 이전의 모델 사업을 모방함으로써 성장했기 때문이다. 구 이카자키초의 활동은 고쿠보에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구 이카자키초 또한 나가사키 현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구 이카자키초와 고쿠보의 관계는 모델의 모방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 2. 이카자키초 환경 위생 실천회 활동

### (1) 지역 개요

기타 군 구 이카자키초(현재 우치코초)는 에히메 현의 남쪽, 난요 지방의 내륙에 속하며 서쪽은 오즈 시, 북쪽은 우치코 시, 남쪽은 히지카와초, 남동쪽은 가와베무라와 접해 있다. 히지카와 강의 지류인 오다가와 강이 마을 중심부의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순수 농촌지역이며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쇼와 29년에 구 이카자키초, 텐진무라, 미소기무라가 합병하여 이카자키초가 되었다. 아래 운동은 구 세 곳의 마을들이 중심이 된 활동이다.

## (2) 활동 경위

다음으로 『개정 五十崎町誌』와 『관보 이카자키 축쇄판』을 통해 활동 내용을 살펴보자.

쇼와 18년과 21년 두 번에 걸쳐 적리가 집단 발생하여 특히 쇼와 21년에는 총 환자 수 121명,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또 소학교 강당이 가설 격리병동으로 사용될 정도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주민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쇼와 28년에 같은 마을 출신이자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인 우지모토 시게키 박사를 초청하여 나가사키 현 환경위생활동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9년에 마을 대표 정장(町長) 이하 7명이 환경위생 선진지역인 나가사키 현을 시찰했다. 이후 쇼와 30년에 오즈 보건소로부터 '위생 모델 마을'로 지정받고,<sup>9</sup> 시찰단을 포함한 관계자 40여명이 '환경위생연구회'를 개최하여 환경위생실천회의 방침을 정했다. 쇼와 30년 1월 25일 '이카자키초 환경위생실천회'<sup>10</sup>를 발족했는데 목적은 '건강하고 밝으며 풍요로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서쪽 곤촌 구제에 두고 연간 30만 엔의 환경위생비가 마을 행정 예산에 계상되었다.

## (3) 활동내용

먼저 활동지침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사업은 어디까지나 나가사키 식을 채용하고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둘 것.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변소와 도랑, 진애소각로 설치, 퇴비사, 축사 등의 개선, 부역의 개선, 간이수도 설치 등이며 마지막으로 영양 개선이다. 이를 위해 구 정촌을 단위로 하여 1지구 당 3지구를 모델 지구로 지정할 것. 이에 필요한 경비는 쇼와 29년에 경정 예산을 짤 것.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모아 마을 전체의 조직을 만들 것. 즉 후지모토 시게키의 나가사키 실천방식을 모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개선, 인프라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활동의 경우, 변소 개선은 변을 모으는 곳을 완전 밀폐하여 외부와의 출입을 차단하고 하수구는 적은 물로 철저히 청소할 수 있어야 하며 오수가 남지 않는 V자형 도랑을 장려했다.

## (4) 사업 추이와 평가

5년 동안 1870세대 모두 변소, 도랑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쇼와 29년에서 35년 사이의 7년 동안 1862호만 완성이었다. 사업에는 철저한 지도방침이 있어서 자재 시멘트, 석회 등의 경우, 70%를 마을이, 30%를 지구가 부담하고 전 지구를 실행반장 등이 순회하여 개선계획을 기초로 자재 수량을 산정하고 산정한 자재는 개인이 아닌 지구 전체의 자재로 소중히 사용하도록 했다. 개선 계획 외의 개선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부담이나 지구 주민들의 무료 봉사를 통한 공동작업 방식으로 행하고 개인 작업은 허락하지 않는 등의 규칙이 있어 조직적 활동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개개인의 활동이라기보다 마을 행정의 개선활동이라 보는 편이 낫겠다. 마을 주민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위생 의식이 매우 높아져 청소를 깨끗이 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지구 전체 주민들의 융합이 이루어졌으며 환경위생뿐만 아니라 도로, 마을 경계 문제 등 오랜 현안들도 각각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었고 특히 청소년의 불량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염소의 요마비(腰麻痺)가 많이 감소했고 소의 발육, 닭의 산란율도 약 20% 이상 개선되었다(표 1, 2).

	파리					모기					벼룩					쥐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
완전히 사라졌다	1	0	2	3	2	2	3	6	11	8	12	28	27	67	46	10	4	13	27	19
거의 사라졌다	16	13	14	43	30	30	25	32	87	60	29	16	14	59	41	18	18	14	50	34
반 정도 사라졌다	21	21	21	63	44	12	17	8	37	26	2	5	4	11	8	13	10	7	30	21
20% 정도 사라졌다	2	6	6	14	9	1	4	1	6	4	0	2	1	3	2	3	7	5	15	16
똑같다	6	12	4	22	15	1	3	0	4	2	3	1	1	5	3	2	13	8	23	16
計	46	52	47	145		46	52	47	145		46	52	47	145		46	52	47	145	

표1 서쪽근촌류의 감소율 (쇼와 30년 8월 1일)

	닭 산란율				소 발육				유아 발육				가족의 병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上村	上宿間	谷成内	計
증가	9	6	8	23	2	12	6	20	4	6	3	13	5	2	1	8
변함없음	4	28	7	39	4	14	7	25	2	14	5	21	5	10	2	17
감소	0	2	1	3	2	0	0	2	0	1	0	1	0	20	15	35

표2 환경위생의 영향 (쇼와 30년 8월 1일)

### (5) 이후

이 활동을 계기로 마을 전체의 환경위생사업이 전개되어 구체적으로는 정례 춘계 대청소 지도, 1년에 4번 소독사업, 쥐 박멸의 달 실시, 묘소의 꽃꽂이 처리 및 대나무숲 처리, 파리잡기운동, 구더기잡기 콩쿠르 개최, 마을이 운영하는 물뿌리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높이 평가되어 쇼와 31년 환경 위생 마을로서 애히메 신문사 상 수상, 쇼와 32년 환경위생모범마을로 마이니치 신문사 및 후생대신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을 지도한 후지모토 시게키는 영양 개선을 같은 마을에서 실시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의 생활 개선이 활발해져 『관보 이카자키 축쇄판』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전해졌다. 특히 환경위생 개선이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생활개선보급 사업과의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 (6) 소괄

쇼와 30년에 오즈 보건소로부터 ‘환경위생 모델지구’로 지정받은 경위부터 이 사업이 마을 전체의 생활 향상에 기여했음을 이상에서 알 수 있었다.

또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후지모토 시게키가 이 활동에 참여한 의의는 크다. 나가사키에서는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이 각의 결정된 쇼와 30년 이전인 쇼와 26년 7월 이후 ‘모델 위생 시정촌 건설 사업’이라고 명명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 계기는 적리 등의 감염증을 매개로 한 서쪽근촌을 구제하는 사업이 전개되면서 쇼와 26년 5월에 니시오카 다케지로 지사가 취임함과 동시에 현의 시책으로서 위생 나가사키 현 건설을 목표로 모기, 파리, 쥐를 구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된 것과 관련이 있다.<sup>11</sup> 즉, 구 이카자키쵸 출신인 후지모토가 나가사키에서 실천한 활동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활동은 나가사키 식 행정과 주민의 강한 조직 관계에 특징이 있었고 통솔된 활동 및 시설 개선은 인프라 정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쇼

와 30년 만을 본다면 아직 조직 자체가 마을에 제대로 알려지지지는 않았었다. 『관보 이카자키 제7호』<sup>12</sup>에 기록된 반성 내용을 보면 ‘협력정신’의 결여가 지적되었다.

### 3. 우와지마 시 고쿠보 공민관과 지구 위생

#### (1) 지역 개요

우와지마 시 고쿠보는 시내 남서부에 위치하며 구시마 건너편의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觀音、若宮、住吉、金比羅、和靈 1구、和靈 2구、隣護、白浦의 8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은 험준한 산에서 바다로 이르는 평지에 위치하며 연안을 따라 길고 가느다란 형태이다. 생업은 주로 어업과 진주 양식업, 굴 재배이다. 쇼와 30년대에는 굴 재배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주로 보리, 감자를 다랭이논에서 재배했다. 어업도 활발하여 뜰망, 선망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이루어졌다. 쇼와 32년 당시 인구는 357세대, 1397명이었다.

#### (2) 활동 경위

『지구 위생의 발자취』 및 기록 슬라이드 영화 『시궁창과 싸운 공민관』을 살펴보자.

쇼와 28년에 고쿠보 공민관이 설치되면서 주사로 임명된 청년단 단장 차하칠웅(此下七雄)<sup>13</sup>은 공민관의 활용에 대해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된 회의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고 있던 점에 의문을 가졌다. 차하는 지역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sup>14</sup> 쇼와 28년부터 시작된 이 지구로의 순회는 부인 학급, 부인회,<sup>15</sup> 청년단을 둘러싼 지구 집회(사진1)<sup>16</sup>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진1 지구 집회 풍경

쇼와 30년 말, 어느 지구 집회에서 ‘도랑 냄새가 지독해서 참을 수가 없다,’ ‘파리가 너무 심하게 들끓는다’는 불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주사는 이를 지구 생활의 문제라 여기고 우와지마 시 사회교육과, 우와지마 시 보건소 등의 지도기관의 협력을 얻어 지도자 연구회를 열고 공민관의 연차 계획을 통해 지구 위생을 시정하고자 했다. 부인회 조직과 공민관을 발판으로 하여 환경위생기술 강습회를 열었다. 지구 집회에서 고쿠보 지구 환경위생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구의 남성들 중에는 ‘어부가 파리에 신경 쓰면 어디 살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반발 속에서도 부인회, 청년회는 하수구 정비 자금을 자치회에 요청하여 예산을 만들고자 했다.

쇼와 31년 고쿠보 자치회는 지구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구의 하수구

정비에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자치회 간부는 기타 군 구 이카자키쵸로 시찰을 갔고 하수구 개선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1월 19일에 초기 공사가 1지구에서 시작되어 3월 명절 준공을 목표로 차례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 다른 지구에서도 콘크리트로의 개선 신청이 줄지었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지구의 하수구 공사가 이루어졌다.

### (3) 활동내용

쇼와 30년 지구 집회에서 ‘모기가 들끓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계기로 하수구 청소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하수구는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오수나 쓰레기를 치워도 물이 다시 모이게 되어 금세 모기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하수구를 콘크리트로 메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7곳의 지구 집회 중 1곳의 지구가 실행에 옮겨 하수구 개선을 시도했다. 30세대 회원 모두가 오물을 뒤집어쓰고 땀을 흘리며 자갈을 쌓아 콘크리트를 덮었다. 여성들의 고생을 보다 못한 청년 단원들과 몇몇 남성들이 협조했다.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 지구 협의회는 공민관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 공사했고 모든 부락에서 이루어졌다.

부인 학급은 보건소에서 기사를 모셔와 환경위생기술 강습회를 열고 자치회, 청년단도 여기에 참석했다. 각 지구 집회에서는 보건소의 위생 교육과 협력하여 지구 위생의 기초지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환경 위생의 실태가 지구 집회에서 논의되었다.

실시 계획의 자금 조달도 지구 집회의 결집된 의견에 따라 매년 부인회 예산의 주요 재원인 감자를 썰어 말린 것을 판매한 수입 15000엔을 50가마니의 시멘트 값으로 썼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지구 집회는 하수구 개선의 실천으로 이어졌다(사진2). 당시 부인회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지구의 완공 목표는 3월 명절로 설정되었지만, 2번째 작업 때부터 모든 지구에서 ‘구정물을 없애자’는 의견이 다수 출현하여 집중적인 하수구 개선이 이루어졌다. 총 경비 40만 엔, 부인회의 시멘트 50가마니는 300가마니 이상이 되었다.



사진 2 하수구 공사의 한 장면

### (4) 활동의 평가

우와지마 보건소 위생교육계 도엽봉웅(稻葉峯雄)은 고쿠보 지구의 활동에 대해 관이 지정해서 실행하는 위생 모델지구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과제로서 대처한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었다고 평

가했다. 특히 공민관이 육성한 지구 집회가 진정한 모체가 된 점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한다.

또 『시궁창과 싸운 공민관』에서는 지구를 방문한 사회교육과장에게 자치회장이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부락의 더러움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락 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시에 의존하거나 높은 분께 부탁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락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에 따라온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의식개혁으로서의 기능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5) 이후

지역 주민들은 지구 집회를 생활 합리화 운동으로 생각하며, 하수구 개선은 그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쇼와 33년에 생활 합리화 운동이 행해졌다. 그 첫 번째는 생활 전기화의 문제였다. 4월 부인 학급에 시코쿠 배전의 기사를 강사로 모시고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등 부역의 전기화에 대한 지식, 구입 방법 등을 연구하고 그 3개월 후 지구에는 8대의 세탁기와 40개의 전기밥솥 등이 들어왔다.

생활 합리화 운동은 생활 전기화, 생활 경제의 조사, 농가 부기의 기입 등 항상 의식 개혁을 필요로 했다. 하수구 개선은 생산과 연결된 의식 개혁이기도 했으며 생활의 협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의식 개혁은 기록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 쇼와 32년에 작성된 지구 위생의 기록 슬라이드 『시궁창과 싸운 공민관』은 그들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주민의 활동 의식을 높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듯이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는 ‘속닥속닥 상자’와 같은 활동도 이루어졌다. 의견은 발표 토론되었고 공민관에서 기록으로 정리했다.

## (6) 소괄

이 활동의 계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간 이야기 중에서 문제를 발견한 일이었다.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대부분이 방역상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고쿠보의 경우 주민들의 집단 토론이 선행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또 이 활동이 하수구 개선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생활 합리화 운동을 촉진한 부인회와의 연계도 있었다. 이 활동의 원동력은 주부들이었다. 지구 집회도 주부들이 열었다. 이 통솔 부분을 공민관이 담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차하는 공민관을 생활 의견을 수합하는 장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후방 지원이 공민관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시 행정도 이 활동에 대해 간섭하는 일은 없었다.

## 4. 기타 군 구 이카자키초에서 우와지마 시 고쿠보로

기타 군 구 이카자키 초와 우와지마 시 고쿠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곳의 계기, 배경, 조직 구성도 전혀 다르다. 다만 우와지마 시 고쿠보의 하수구 개선은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인 모델로서 구 이카자키초를 시찰하였다. 즉 이 두 활동은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구 이카자키초와 우와지마 시 고쿠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두겠다. 공통점은 모기와 파리의 발생원인 물웅덩이, 쓰레기더미를 없애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해 두 곳 모두 그 발생원을 없애고자 했다는 점이다. 구 이카자키초에서는 철저한 모기의 박멸 운동이 전개되었고 나가사키 방식에 따라 하수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교체하고 변소, 쓰레기장은 콘크리트로 덮는 등 파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고쿠보에서는 연안 파도의 영향으로 하수구에 바다로부터와 쓰레기가 역류해 온다는 점이 큰 문제였고 이를 해소해야 했다.

차이점은 주민들의 역할에 있다. 구 이카자키쵸에서는 행정이 주체가 되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고쿠보에서는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지도자인 후지모토 시게키와 차하칠웅 두 사람의 존재가 개입되어 있다. 후지모토는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전문가의 입장에 서서 구 이카자키쵸의 활동을 도왔다. 이것이 행정적 측면에서의 주민 참여를 가져왔다. 마을의 장(이장과 유사)이 필두가 되어 지시 계통이 나뉘어졌으며 주민들의 노동력을 모아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만 ‘참여’라고는 해도 행정적 조직 틀 안으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발언권은 적었다. 생활 과제를 찾아내어 주민들이 이에 깨닫게 하였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협동, 주민들 사이의 협동을 실현시켰다. 지구 집회를 중심축으로 하여 협동 대상 집단에 자치회가 만들어졌고 행정은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개입했다. 앞서 말한 이카자키와 비교하면 행정적 색깔을 적었고 주민들의 의사 결정권도 있었다. 구 이카자키쵸가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이라면 고쿠보는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이다.

난요 지역의 두 지구의 활동은 서로 기술의 습득이라는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방식은 행정적, 민주적 측면에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각자의 적합한 방법이 채택되었다.

## 나오는 말

난요 지역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의 모델은 나가사키의 환경위생개선 활동이었다. 이는 후지모토 시게키를 통해 먼저 구 이카자키쵸에 도입되었다. 구 이카자키쵸에서는 후지모토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 활동이 시작되었고 쇼와 30년에 오즈 보건소의 추천으로 모델 지구로 지정되었다.

우와지마 시 고쿠보에서는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로서의 개선 계획에서가 아니라, 공민관을 친근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 사회교육적 의미에서 차하칠웅이 시작한 지구 집회가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하수구 개선을 결정했다.

그럼 전후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운동에서 이 두 지역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첫째로 이 활동 이후의 차이이다.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고쿠보는 개선 활동을 생활 합리화로 이어갈 수 있지만, 관 주도인 구 이카자키에서는 행정의 지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로 생활 과제에 대한 대응이다. 구 이카자키는 행정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변칙적인 생활 상황에는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고쿠보는 유연한 발상과 대응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수구 개선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 즉, 생활 과제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이후의 전개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쇼와 30년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시행착오도 있었기에 혼란스러웠다. 전쟁 이전부터 있던 강권적 하향식 방식을 취한 지역도 있었고 전후의 민주적인 주민 의견의 반영으로서 상향식 방식을 취한 지역도 있었다. 주민 참여라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 방향성은 당사자의 생활 과제에 대한 자세에 따라 좌우된다. 때문에 기술은 같더라도 방법은 달라졌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모델의 파급은 그 모델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이라면 행정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주민이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활동이 달라진다. 고쿠보의 경우, 주민이 생활 과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협동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에 행정의 틀을 넘어선 활동으로 발전했다. 구 이카자키는 행정이 주도하였기에 형식적인 합의 형성은 가능했지만 주민들 개개인에 이르는 정도의 철저함은 없었다.

환경위생개선은 지역의 생활 과제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과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협동에 대한 합의가 형성된다. 이것이야말로 큰 의미를 지닌다. 생활 개선의 실체는 결국 현지에서 생활 과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그들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가라는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注

- 1 橋本正巳 「모기와 파리가 없는 마을 만들기」(『農業世界』 8월호, 쇼와30년).
- 2 須川豊 「모기와 파리를 없애는 운동을 위해」(『厚生』 4월호, 쇼와 32년).
- 3 関なおみ 「전후 일본의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실천 운동—주민참회와 국제협력의 시점에서」(『国際保健医療』 제24권 제1호, 헤세21년).
- 4 澤田るい 「전후 일본에서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실천운동의 전개—교육영화 『백 명의 쾌활한 주부들』 분석에서—」(『文化資源学』 제13권, 헤세27년).
- 5 野村健一・川端愛義, 『귀와 위생해충』, 北隆館, 쇼와 22년, 金原一郎 편, 『전염병을 매개하는 서족곤충 박멸지침』, 일본의학잡지 주식회사, 쇼와21년.
- 6 「자료 『모기와 파리가 없는 생활』 실천운동에 관한 건」(『도시청소』 제25호, 쇼와 30년), 「예산 81억엔으로 추진 모기와 파리 추방운동」(『新聞月鑑』 제78호, 쇼와 30년).
- 7 쇼와 21년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 쇼와 42년 정년퇴임까지 위생학, 공중위생학의 교육과 연구를 했다. 쇼와 29년부터 이카자키초 환경위생 지도 및 위생 사상의 보급에 노력했다. 이카자키초의 환경위생모델 사업을 전인했다(五十崎町誌編纂委員会編, 『改訂五十崎町誌』, 1998).
- 8 나가사키 시 다테가미초, 히가시야마테마치, 니시소노기 군 나가우라무라, 소노기마치 네 군데를 시찰. 구 이카자키초와 직접 관련되는 곳은 니시노소기 군 나가우라무라. 동기는 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이며 변소 개선, 진애소각로 설치, 후지모토 식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전염병 소멸, 기생충은 감소했다(『公民館報』 第2号 昭和30年1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9 쇼와 30년 1월 12일에 오즈 보건소장으로부터 '에히메현 모델 위생지구 설치에 관해'라는 통첩이 후생계로 전달되었다. 내용은 '모델 위생지구'로 지정받고 싶은데 마을의 의향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五十崎町公民館報』 第3号 昭和30年3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10 조직은 집행기관으로 회장(정장), 부회장(조역), 이화이사회(회의 의사결정기관), 회계(경비), 집행부, 협력반의 4가지로 나뉜다. 이사회는 의회의장, 부의장, 문, 후생위원, 교육위원, 학교장, 공민관장, 부인회장, 청년회장, 大久喜광업소 소장, 학식경험자의 총 31명. 집행부 중 대책부에 후생계장, 계에 후생계와 공민관주사(계몽, 선전)가 있어서 계획을 이사회에 붙인다. 집행부 안에 속하는 실행부는 후생원장, 각 구장이 실행지 부장이 된다. 협력반은 학교협력반, 부인회협력반, 청년단협력반이 있다(『五十崎町公民館報』 第3号 昭和30年3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11 橋本正巳 「広島・長崎両県における環境委衛生生活活動について—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運動の全県的普及の先駆—」(『日本公衆衛生雑誌』 第2巻第3号, 昭和30年).
- 12 모델 지정 6개월 후의 상태를 조사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계획은 어느 정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협력정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쓰여 있다(『館報いかざき』 第7号 昭和30年10月25日,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1990).
- 13 차하칠웅은 쇼와 4년 고쿠보에서 태어났다.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본다고 하여 존경을 받았고 쇼와 28년에 고쿠보 공민관이 만들어졌을 때 초대 공민관 주사를 맡았다.
- 14 차하 주사는 '공무원이자 지도자이기 이전에 백성의 한 사람이자 부락의 주민'임을 인식하고 '난 이 부락의 주민이고 백성이니까 모두와 함께 생각해보자. 이제 공무원이나 윗사람, 외부의 공민관 주사 흉내를 내는 것은 관두자.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이야기하자. 문제는 부락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여 공민관이 단순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다.
- 15 부인회는 시집오면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시어머니가 부인회에 남아 있을 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부인회는 고쿠보에 하나 있었으며 우와지마 시 말단조직으로 위치지워졌다. 부인 학급은 공민관 강좌로 부인회 회원들 다수가 출석했으며 정해진 연령 제한은 없었다.
- 16 지구 집회는 이 부락 내 생활의 모체로 만들어진 여성단체이다. 쇼와 30년 말경부터 시작되어 30명 정도가 모여 활동을 통해 차츰 단체로서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집회 내용은 그냥 보면 잡담이나 노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학습 활동이었다고 한다. 각 여성들이 생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 참고문헌

---

- 金原一郎編, 『伝染病を媒介する 鼠族昆虫撲滅指針』, 日本医学雑誌株式会社, 昭和21年.
- 野村健一・川端愛義著, 『鼠と衛生害虫』, 北隆館, 昭和22年.
- 橋本正巳, 『蚊とハエのいない町を行く』, 『厚生』 第8巻第7号, 昭和28年.
- 須川豊, 『蚊や蠅をいなくしよう—環境衛生立法の背景—』, 『時の法令』 第130号, 昭和29年.
- 橋本正巳, 『蚊とハエとブユの駆除』, 『国立公園』 第66号, 昭和30年.
- 『資料 『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の実践運動に関する件』, 『都市清掃』 第25号, 昭和30年.
- 『予算八十一億円で推進 蚊とハエの追放運動』, 『新聞月鑑』 第78号, 昭和30年.
- 橋本正巳, 『蚊とハエのいない村づくり』, 『農業世界』 8月号, 昭和30年.
- \_\_\_\_\_, 『広島・長崎両県における環境委衛生活動について—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運動の全県的普及の先駆—』, 『日本公衆衛生雑誌』 第2巻第3号, 昭和30年.
- 石応公民館蔵 記録スライド映画, 『どぶととりくんだ公民館』, 昭和32年.
- 石応公民館, 『地区衛生のあゆみ—石応公民館事業概説—』, 昭和33年.
- 五十崎町中央公民館編, 『館報いかざき縮刷版』, 平成2年.
- 五十崎町誌編纂委員会編, 『改訂五十崎町誌』, 平成10年.
- 関なおみ, 『戦後日本の「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実践運動」—住民参画と国際協力の視点から』, 『国際保健医療』 第24巻第1号. 平成21年.
- 澤田るい, 『戦後日本における「蚊とはえのいない生活」実践運動の展開—教育映画『百人の陽気な女房たち』の分析から—』, 『文化資源学』 第13巻, 平成27年.